

현이 되었지만, 중앙의 입장에서는 남해의 먼 지역의 행정 구역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제3절 고려 시대 광양의 사회경제적 구조

1. 향·소·부곡과 그 구성 성씨를 통하여 본 광양

고려시대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법제에 의해 나타난 것 이상을 알기는 쉽지 않다. 광양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광양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광양 지역 일반백성의 생활상을 되돌아보고, 지방 행정구조상 살펴볼 수 있는 사회경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백성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지리적인 환경과 생산 자원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오늘날 광양 지역의 사회경제구조와는 다르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일반백성이 처했을 사회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양 지역에 거주한 일반백성 가운데 농민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토지를 경작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였던 농민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져야 했다. 토지에 대하여 무는 세금(租稅)이 기본이고, 자신의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는 1/2을 지대로 바쳐야 했다. 그리고 특산물을 세금으로 무는 공부(貢賦)를 담당하여야 했다. 특산물을 바치는 공부는 호구의 수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하여졌는데, 광양에서 나는 특산물이 수취 대상이었다.

광양 지역의 생산물로는 바다에서 나는 것과 육지에서 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광양은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산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물산이 다양하게 나왔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은구어, 오징어, 조기, 숭어, 농어, 병어, 준치, 낙지, 왕새우, 홍합, 전복, 미역, 파래, 김 등이 있다.²⁰⁾ 광양 연안에서 다양한 어류와 해조류가 생산되고 있었으며, 이는 광



광양은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산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물산이 다양하게 나왔다.

20) 주로 『세종실록지리지』 광양현을 참고함.

양의 물산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였다. 육지에서도 생강, 석이버섯, 꿀, 표고, 송이, 차, 감, 닥, 석류, 유자, 대나무, 죽전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었다. 육지의 특산물은 대개 산을 끼고 나오는 것으로 광양의 사회경제적 입지가 다양한 물산을 내놓기에 적합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밖에 철, 울금, 복령 등이 생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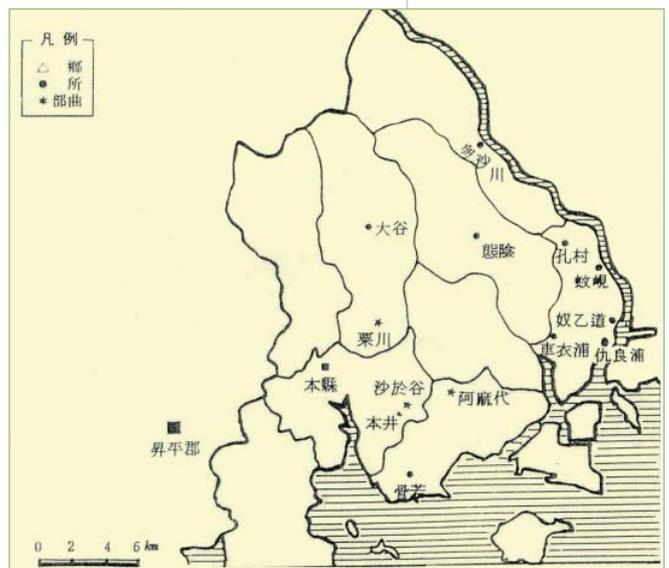
광양 지역의 바다와 육지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주로 광양민들이 물어야 하는 공부의 품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양의 일반 백성들은 도로 건설, 성곽축조 등 각종 국가나 관청의 공사에 동원되어 요역(徭役)을 부담하여야 했다. 흔히 삼세(三稅)라고 불리는 전세, 공부, 요역은 일반백성이 대부분 담당하였던 세금이었으므로, 광양 지역 사람들만 물어야 했던 세금은 아니었다.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 일반백성이나 향리 가운데 군인으로 차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군역(軍役)에 관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으나, 고려 전기에는 주현군(州縣軍) 제도가 정비되어 일반백성이 군인으로 충원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다. 주현군은 보승(保勝), 정용(精勇), 일품군(一品軍)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하여 직업적인 군인인가, 아니면 농민으로 군역을 담당하던 사람인가 논의가 있다. 군사상 광양을 관할하였던 승평도에는 보승 240명, 정용 184명, 일품군 415명이 있었다.²¹⁾

광양 거주인 가운데 보승, 정용, 일품군 등 주현군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주현군에 속하지 않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일반 백성 남자들은 2, 3품군에 속하여 요역을 지지 않았나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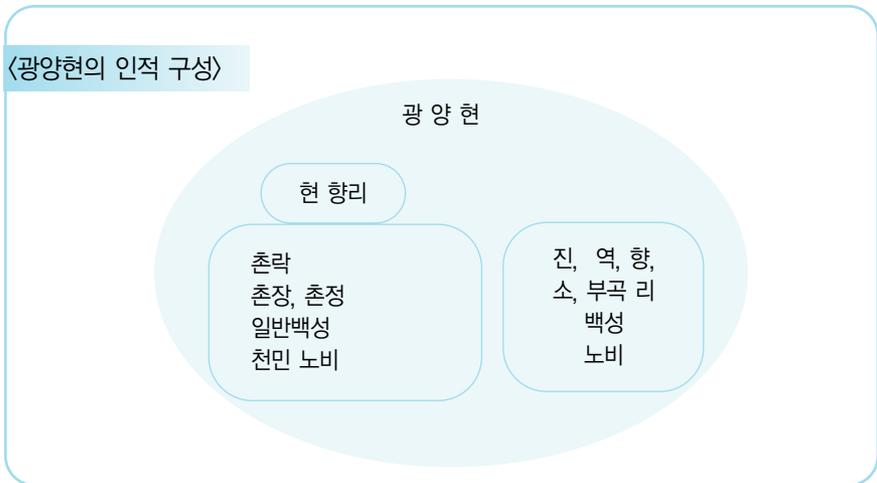
광양 지역 일반백성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는 세금이나 군역을 염두에 두고, 광양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광양의 지방행정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광양현은 자연촌락과 자연촌락을 묶은 몇 개의 지역촌, 향, 소, 부곡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촌락에는 촌락의 지배자인 대감(大監), 제감(弟監)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종 6년(987) 촌장(村長), 촌정(村正)으로 명칭이 변하였다. 진(津: 나루터), 역(驛), 향, 소, 부곡에도 지배층이

21) 김당택, 「고려초기 지방군의 형성과 구조」,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1983, 101-108쪽.

사진2-40 : 고려시대 광양현의 향·소·부곡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일반 군현의 향리와는 차이가 있는 리(吏)였다. 광양현의 전체 행정사무를 담당한 향리, 촌락의 행정을 담당한 촌장과 촌정, 일반 백성, 천민(노비) 그리고 진, 역, 향, 소, 부곡의 리와 소속 백성, 노비 등이 광양현의 인적 구성이었다고 하겠다.



광양에 감무가 파견되기 전까지는 광양현의 향리는 승평군의 관할 아래 있었으며, 특수 지역인 진, 역, 향, 소, 부곡도 승평군의 관할을 받았다. 광양현의 향리가 특수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인 통제를 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광양에 지방관이 파견된 이후로 광양 소속 특수 지역은 광양 지방관의 통제를 받았으며, 현의 향리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수 지역에 대하여는 천민 집단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견해와 부곡과 같이 일반 군현체제가 아닌 별도의 제도 아래 운영되는 지역이라는 견해가 있다.²²⁾ 특수지역이 일반 군현의 촌락에 비하여 특수한 역을 지거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지역이었지만 천민집단으로 보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양현의 향리층을 이루거나 지배층이었던 사람들은 『세종실록지리지』에 토성(土姓)으로 기록된 성씨 출신이었다. 토성에 대하여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고려 후기에는 그 지역의 지배층으로 굳어진 성씨이며, 그 지역을 본관으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광양현의 토성으로 10개 성씨가 보인다. 10개의 토성 가운데 고려시대에 활동한 기록이 보이는 성씨는 고려 전기 광양 김씨,²³⁾

22) 박종기, 『고려시대사』상, 216-263쪽.

고려 후기 광양 이씨 정도이다. 나머지 성씨를 가진 인물에 대하여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 언제 성립되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광양현의 토성이 적어도 고려 후기에 10개의 성씨였다는 점은 순천(승평)과 비교하여 보면 색 다른 점이 있다. 광양에 감무가 파견되기 전 광양을 속현으로 관할하고 있던 승평에는 4개의 토성이 있으며, 속현인 부유, 여수, 돌산에도 3-5개의 토성이 있을 뿐이다. 광양현에는 인근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토성이 나타나고 있다. 광양현에 토성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고려초부터 형성된 광양의 토성은 향리층으로 활동하여왔지만 특정한 성씨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성씨가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였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광양현에 본래 소수의 토성이 존재하였는데 고려 후기에 다른 지역의 토성이 이주하여 토착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광양현이 고려 전기에는 승평의 속현이었으며, 토성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광양현에는 적어도 고려 후기에 10개의 성씨들이 지배층을 형성할 만큼 다양한 성씨들이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겠다. 이들 가운데 향리로 활동한 성씨들이 있었을 것이며, 고려말에 품관층으로 전환한 성씨들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광양에 속한 특수지역에도 각각의 성씨들이 있었다. 향(鄕)이었던 본정에 차, 최씨, 소(所)였던 골약에 속성으로 차씨, 김씨, 부곡(部曲)이었던 아마대에 김씨, 망성(亡姓)으로 차씨(혹은 최씨)가 있었다.²⁴⁾ 본정향의 차씨와 최씨, 아마대부곡의 김씨는 향과 부곡의 토착 성씨로 그 지역의 지배층을 구성한 성씨였을 것이다. 이들은 광양현의 토성에는 비교되기 어렵지만 특수 지역에서 상층부를 구성하였으며, 그 지역의 리(吏)로서 활동한 성씨였을 것이다. 아마대부곡에 보이는 망성인 차씨, 혹은 최씨는 아마대부곡의 김씨와 같은 지위에 있던 성씨였지만 고려후기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가계가 단절된 경우라고 하겠다. 골약소의 차씨와 김씨는 속성(屬姓)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새로이 조선초에 골약으로 옮겨온 성씨로, 골약의 향리 계층으로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이주하여 왔을 수 있다.

23) 고려 전기 활동이 남아 있는 광양 김씨로 대표적 인물은 김척, 김약은, 김황원 등이다. 이에 대하여 이수건, 앞의 책, 209-210쪽이 도움이 된다.

24)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아마대의 망성으로 차씨가 있다고 기록하고 어떤 기록에는 최씨가 있고 차씨가 없다고 표기하여 놓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아마대의 성씨로 망성에 대한 기록 없이 김, 차, 최씨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25)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양읍지』 등을 토대로, 『광양군의 문화유적』(순천대박물관, 1993, 10쪽)을 참조하고, 김광호 광양시사편찬위원의 조언을 통해 정리하였다.

구분	현재 지역	성씨	비고	
광양현	광양읍	김(金)·서(徐)·전(田)·장(鄭)·이(李)·유(柳)·강(康)·신(辛)·박(朴)·황보(皇甫)	전부 토성	
향	본정(本井)	사곡리 본정마을	차(車)·최(崔)	
	삼일(三日)	여천시 삼일동		
소	문현(蚊峴)	진월면 송금리 송현		
	노을도(奴乙道)	진월면 오사리 사명		
	골약(骨若)	동광양시 황길동	속성-차(車)·김(金)	
	차의포(車衣浦)	진월면 차사리 차동		
	구랑포(仇良浦)	진월면 신구리 구동		
	공촌(孔村)	진월면 월길리 대리		
	다사천(多沙川)	다압면 도사리 다사		
	대곡(大谷)	광양읍 죽림리 대실		
	실점(實岾)	(?)		
	오정(烏頂)	진월면 오사리 오추(?)		
	지암천(知巖川)	다압면 금천리 직금		
	웅음(熊陰)	진상면 황죽리 웅동		
	옥곡(玉谷)	옥곡면 신금리 신진		『동국여지승람』에만 보임
	공을도(孔乙道)	진월면 월길리 문암(?)		"
부곡	아마대(阿麻代)	골약동 중군리	김(金), 속성-차(車) 혹은 최(崔)	
	사어곡(沙於谷)	광양읍 사곡리		
	아민(阿民)	(?)		『세종실록지리지』에만 보임
	울촌(栗村)	옥룡면 울천리 울곡		

성씨들이 기록되지 않은 특수 지역이 많은데 고려 시대에 이 지역에 상위 층을 형성한 성씨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록의 인멸인지 단정하기 곤란하다. 광양현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토성이 있었으며, 특수 지역도 많았다. 이 점은 광양현의 사회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지역 가운데서도 소가 12곳이나 되고, 부곡 4곳, 향 2곳이 있었다.²⁶⁾ 일반적으로 소는 특별한 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12곳에 있었던 소에서 어떤 것을 생산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당시의 생산물과 지명 유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박을 만드는 선소(船所), 종이를 만드는 지소(紙所), 대나무제품을 생산하는 곳, 버섯을 채취하는 곳, 배를 짜는 곳, 광산, 소금을 생산하는 곳(鹽所), 어장(漁場) 등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특수 지역이 많았다는 점은 광양현의 특산품이 많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으며, 부곡이 4곳이나 되었다는 점도 부곡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재원 확보와 관련이 있다면 광양 지역이 재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26)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향, 소, 부곡에 차이가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골약소라고 되어 있으나, 『동국여지승람』에는 골약부곡이라 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옥곡소, 공을도소 등이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를 토대로 하고, 『동국여지승람』을 참고로 하여 향, 소, 부곡을 작성하여 둔다.

있음을 알려준다.

광양현에 감무가 파견된 것으로 여겨지는 명종 2년 이후에 광양현의 향리는 승평군에 나아가 행정업무를 지시받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감무를 통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중간 단계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광양현의 향리층이나 일반백성은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며, 사회적 지위도 올라갔다. 특수 지역이었던 향, 소, 부곡, 진, 역의 사람들도 점차 광양현 감무의 통제를 받아 경제적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 소, 부곡 지역은 조선초에 이르면 대체로 일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 갔지만, 고려 후기에 특수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이미 변질되고 있었다.

2. 조운과 진·역

사회경제구조에 있어 경제적 연계망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치의 골격안에는 경제적인 수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 시대 중앙정부의 지방인에 대한 수취 가운데는 토지로부터 거둔 세금, 특산물, 요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역은 각종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역에 동원되어야 했다. 토지로부터의 세금이나 특산물 수취는 중앙으로 운반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운반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수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조운(漕運)은 일찍부터 국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성종대에 이르러 지방관의 파견이 이루어졌지만, 조세 수취와 관련된 관리는 고려초부터 지방에 파견되었다. 고려초에 파견된 조세 관련 관리의 명칭으로 ‘금유’, ‘조장’, ‘전운사’가 보인다. 금유와 조장은 외읍(外邑)의 사자(使者)의 호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종 2년에 혁파하였다.²⁷⁾ ‘금유’, ‘조장’은 지방에 상주하여 행정을 담당하던 관리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파견되었던 관리이다. ‘금유’의 경우 명칭만으로는 어떤 일을 맡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조장’은 명칭을 통해서 조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장’은 조세의 징수와 보관을 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장’과 함께 기록된 ‘금유’도 조세 징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사회경제구조에 있어 경제적 연계망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치의 골격안에는 경제적인 수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 전운사는 현종 20년(1029)에 없어지게 된다(『고려사』 77 백관 외직).



‘전운사’는 조세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다. 토지로부터 조세를 거두는 법이 정해지고 지방의 세공액이 정해지면서 중앙으로 운반하는 책임을 전운사가 담당하였던 것이다.

조세의 징수와 보관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던 ‘금유’, ‘조장’은 성종 2년 12목에 목사가 파견됨으로써 그 역할을 목사에게 넘겨주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 최초의 지방관인 목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금유’, ‘조장’은 조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던 직책이었다고 하겠다. ‘전운사’는 조세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다. 토지로부터 조세를 거두는 법이 정해지고 지방의 세공액이 정해지면서 중앙으로 운반하는 책임을 전운사가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세금은 주로 선박에 의해 중앙인 개경으로 옮겨졌으며, 이를 조운이라 하였다. 선박을 이용하여 세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각지의 세금을 모아 운반할 장소와 담당 기관이 필요하였다. 조창(漕倉)이 바로 그러한 장소이자 기관이었다. 건국 초기에 남방 각도의 조운이 가능한 곳에 12개의 창고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표2-13〉 고려초 12조창		
지역	조창명	현재 지역
충주(忠州)	덕흥(德興)창	충북 충주
원주(原州)	흥원(興元)창	강원 원주
아주(牙州)	하양(河陽)창	충남 아산
부성(富城)	영풍(永豐)창	충남 서산
보안(保安)	안흥(安興)창	전북 부안
임피(臨陂)	진성(鎭城)창	전북 옥구
나주(羅州)	해릉(海陵)창	전남 나주
영광(靈光)	부용(芙蓉)창	전남 영광
영암(靈岩)	장흥(長興)창	전남 영암
승주(昇州)	해룡(海龍)창	전남 순천
사주(泗州)	통양(通陽)창	경남 사천
합포(合浦)	석두(石頭)창	경남 마산

전라도 지역에 설치된 조창은 6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에 설치된 조창이 4곳이다. 전라도가 조세 운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2곳의 조창이 언제 설치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고, 조운을 위한 운반비용이 성종대에 정해진 점, 조세와 관련된 금유, 조장이 성종대에 혁파된다는 점을 통해서 보면 성종 이전에 12조창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12조창에는 판관(判官)이 배치되었다 한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에 12조창이 설치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조운에 관한 책임은 각도 조운사와 판관이 맡았을 것이다. 판관은 각 조창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유, 조장과 마찬가지로

28) 12조창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는 성종대, 그 이전, 정종대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성종대에는 12조창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견해를 따른다. 조창에 대하여는 손흥렬, 『고려조운고』(『사총』 21·22 합, 1977)를 참고할 수 있다.

조운과 관련하여 일이 있을 때 파견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조창으로 세금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에는 향리층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관이 파견되고 난 이후 조창은 관관과 조창의 실무 담당자, 소속 백성들에 의해 움직여졌다.

조창에 모아진 조세는 다음해 2월부터 5월까지 거리에 따라 경창(京倉)으로 운반되었다.²⁹⁾ 광양에서 거두어진 세금은 승주의 해룡창에 모여져 개경으로 운반되었다. 12창에는 세금을 운반할 선박수가 정종(靖宗)대에 정하여졌는데, 승주 해룡창은 한척에 1,000석을 실을 수 있는 초마선 6척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성종 11년(992)에 정해진 운반비를 보면 해룡창에 모아진 세금을 운반하는데 6섬당 1섬을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발지로 8곳의 포구가 제시되고 있다. 8곳의 포구 가운데는 광양의 해안포(海安浦)가 포함되어 있다. 해안포는 원래 마로포(麻老浦)였는데,³⁰⁾ 해안포에서 세금을 운반하였던 것이다.

〈해룡창 내 조운 포구〉

파평포(波平浦) 이전에는 부사포(夫沙浦)라고 하였는데 낙안군(樂安郡-낙안)에 있다. /조양포(潮陽浦) 이전에는 사비포(沙飛浦)라고 하였는데 승평군(昇平郡) 해룡창(海龍倉)이 여기에 있다. /풍조포(風潮浦) 이전에는 마서량포(馬西良浦)라고 하였다. /해안포(海安浦) 이전에는 마로포(麻老浦)라고 하였는데 광양군(光陽郡)에 있다. /안파포(安波浦) 이전에는 동조포(冬鳥浦)라고 하였는데 조양군(兆陽郡)에 있다. /이경포(利京浦) 이전에는 소정포(召丁浦)라고 하였는데 여수현(麗水縣)에 있다. /여수포(麗水浦) 이전에는 금천포(金遷浦)라고 하였는데 대원군(大原郡)에 있다. 은섬포(銀蟻浦) 이전에는 섬구포(蟻口浦)라고 하였는데 평원군(平原郡)에 있다.(『고려사』 79 식화 2 조운)

광양에서 거두어진 세금은 승주의 해룡창으로 모아졌다고 보여지는데, 해룡창이 있던 조양포에서 모든 세금이 개경으로 운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간다. 다른 조창에 비하여 해룡창이 있는 승주에 여러 포구가 소속되어 운반가가 정해져 있다. 왜 승주 해룡창의 경우만 여러 곳의 포구가 출발지로 기록에 남은 것인지? 모든 세금이 조창에 모여 거기서 개경으로 운반되었다면 조창이 있는 포구에서의 운반가만 정해지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승주의 경우 해룡창을 통하지 않고 각 포구에서 바로 개경으로 세금을 운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현재로선 광양 지역의 세금

29) 『고려사』 79 식화 2 조운.

30) 해안포는 현재 광양읍 동천 용강마을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해안포 등 운반가가 6섬당 1 섬으로 정해진 해룡창 내 8 곳의 포구가 12조창이 성립 되기 전에 세금을 운반하던 포구였으며, 12조창이 성립 한 이후 다른 포구는 세금 운 반을 하지 않고 해룡창을 통 해 세금이 운반되었다고 한 다면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 하다. 현재로서는 12조창이 성립된 이후에도 해안포 등 을 통해 세금이 운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 해안포에 모아서 해룡창을 거쳐 개경으로 운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³¹⁾

조창을 통하여 세금을 운반하는 조운이 있는가 하면, 역참(驛站)을 통한 육상운수 통로도 마련되었다. 적어도 성종대에는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 역참제는 전국을 22개역도(驛道)로 하여 525개역으로 이루어졌다. 전라도 지역에는 승라주도와 남원도가 있었으며, 승라주역도 소속인 광양에는 익신역과 섬거역 2개의 역이 있었다.

승라주도(昇羅州道)는 30개 소를 관할한다. 청암(靑巖) - 나주(羅州), 선암(仙巖), 경양(敬陽) - 광주(光州), 덕기(德奇) - 담양(潭陽), 경신(慶新), 청연(淸淵), 용계(龍溪) - 무안(務安), 광리(廣里) - 남평(南平), 인물(仁物) - 능성(綾城), 영신(永新) - 진원(珍原), 오림(烏林) - 철흥(鐵冶), 가림(嘉林) - 화순(和順), 녹사(綠沙) - 영광(靈光), 단암(丹巖) - 장성(長城), 청송(靑松) - 무송(茂松), 가풍(街豊) - 함풍(咸豊), 덕수(德樹) - 모평(牟平), 영보(永保) - 영암, 통곡(通谷) - 도강(道康), 심산(深山) - 해남(海南), 벽산(碧山) - 수녕(遂寧), 별진(別珍) - 죽산(竹山), 남리(南里) - 황원(黃原), 군지(軍知) - 복성(福成), 가신(嘉新) - 보성(寶城), 파청(波淸) - 조양(兆陽), 낙신(樂新) - 낙안(樂安), 익신(益新), 섬거(蟾居) - 광양(光陽), 울양(栗陽) - 승주(昇州). (『고려사』 82 병 2 참역)

역참제는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통로로 특히 중요하였다. 공문의 전달, 관리의 왕래 등을 위하여 역은 신경망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익신역은 광양현 가까이 있었으며, 섬거역은 섬진강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경상도와 연결되는 통로였다. 역을 통해 공문이 전달되는 경우 그 완급에 따라 하루에 가야할 역의 수나 문서 봉인 방법이 달랐다. 제일 급한 공문은 가죽 주머니에 방울을 세 개 달았으며, 다음은 2개, 1개 순으로 완급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하루에 가야하는 역도 7개역, 6개역 등 순차적으로 달랐다. 역을 통하여 행정문서나 전달사항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 급박하게 오고갔음을 알 수 있다.

역에는 역리(驛吏), 역정(驛丁)이 있어 역을 관리하고 말을 준비하였다. 역에는 등급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등급에 따라 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도 달랐다. 1과(科)인 역에는 정인(丁)이 75명, 2과인 역에는 정인이 60명, 3과인 역에는 정인이 45명, 4과인 역에는 정인이 30명, 5과 역에는 정인이

12명, 6과인 역에는 정인이 7명이 배속되었다. 그리고 각 역에는 역리가 배치되었는데, 큰 길(大路)의 정인이 40명 이상이면 역장 세 명, 중간 길(中路)의 정인이 열 명 이상이면 역장 두 명, 작은 길은 중간 길의 예에 의하여 역장을 두도록 하였다.³²⁾ 역에는 크기에 따라 2-3명의 역리가 배치되어 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역에 소속된 역리를 비롯한 역정은 일반 주군현의 향리나 일반백성에 비하여 신분적 차별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역민들은 역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군현보다 부담이 많았으며, 역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일반 군현의 향리나 백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할 때도 역민은 국가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강한 구속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역이 육상교통의 연결처로 역할을 하였다면, 진(津)은 배를 통해 강을 건너주는 수상 교통로였으며, 원(院)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광양 지역 원으로 아마대부곡에 있었던 아마대원, 섬진원, 지장원(地藏院)의 세 곳이 있었다.³³⁾

세 곳의 원에서는 광양 지역을 거쳐가는 관리나 공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숙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32) 『고려사』 82 병 2 참역 성종 2년.

33) 『신증동국여지승람』 40 광양현 역원.

제4절 고려 후기의 사회와 광양

1. 고려말의 개혁과 광양인의 활동

고려 후기 사회 광양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고려 후기는 무인 정권에 의해 고려 전기의 귀족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고, 지방사회의 변화가 눈에 드러나던 시기이다. 변화는 지방사회의 혼란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지방민의 의식의 성장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더구나 고려 후기 원 간섭 아래 발생한 사회적인 혼란,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지방사회의 소용돌이 등으로 말미암아 지방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지방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생계는 유지하여 갔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